



《천천히 그림 읽기》 (조이한·진중권, 웅진출판)

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하나의 그림도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책이다. 이 책은 한장의 그림을 읽기 위해 형식주의·도상학·정신분석학·사회학·여성주의·기호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예컨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금의 무게를 다는 여인>은 얼핏 보면 그저 보석의 무게를 달고 있는 당시의 한 여인을 그린 풍속화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자는 이 그림을 도상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속세의 물질적 욕심에 눈을 돌리지 마라. 신의 마지막 심판 날이 올 것을 기억하라"는 준엄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서점가에 나와 있는 다양한 미술교양서

때로 한장의 그림이 한편의 문학작품보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한다. 신화라는 비현실은 한장의 그림을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보티첼리가 만난 호메로스》(노성두, 한길아트)는 그림으로 신화를 재구성한 책이다. 근대의 화가들이 고대의 신화를 어떻게 해석해 그림으로 재현했는지, 또 이 과정에 현실이 신화 속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보여준다.

흔히 아름다운 한편의 시를 한폭의 그림에 비유하기도 한다. "시중유화(詩中有畵) 화중유시(畵中有詩)"라는 말도 있다. 시와 그림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다. 《시와 그림의 황홀경》(조용훈, 문학동네)은 고은·서정주·김수영을 비롯한 국

내 시인들의 시와 화가 안견·몽크·샤갈·콜비츠 등의 그림이 함께 어울려 별

이는 축제다. 지은이는 몽크의 <절규>에 박제삼의 시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덧칠하기도 하고, 고호의 그림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가을 들녘을 보며 이성부의 시 <벼>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이 언제나 밖을 바라보는 창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 그림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된다. 《내 마음 속의 그림》(이주현, 학교재)과 《그림 속 나의 인생》(김원일, 열림원)은 저자가 꾸민 자기만의 화집이다. 이 책의 저자는 그림을 보며 첫사랑을 추억하고,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슬며시 그림 한켠에 끼워넣기도 한다.

이밖에 우리 옛그림을 통해 당시의 시대와 그림에 깃들인 화가의 정신을 읽어 낸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오주석, 숲)과 '서양복렉스 점검'이라는 주제에 따라 유럽의 박물관을 순례한 《그림의 숲에서 동·서양을 읽다》(조용훈, 효형출판)도 그림을 읽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미술의 세계에 이르는 뒤안길 일러줘

그림 읽기가 언제나 진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정사' 보다는 '야사'가 더 재미있고 진실하다. 조선시대 화가 최북은 한 세도가가 자신의 그림을 트집잡자 자기 눈을 스스로 찢어버렸다. 모딜리아니의 모델이자 아내였던 잔느 에뷔텔은

그림이 빛은 '황홀경'으로 가는 뒤안길

그림을 읽는 법은 다양하다. 한폭의 그림을 두고 어떤 이는 그 그림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읽어내고, 어떤 이는 그림과 연관된 자신의 불우한 시절을 떠올린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림이 주는 메시지를 해독하려 애쓴다.

모딜리아니가 죽자 임신한 몸으로 투신자살했다. "화가에게 영혼을 다 바친 모델의 육신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림, 이는 만큼 보인다》(손철주, 효형출판)는 미술이라는 넓은 대지 위에 흩어진 쏘팔을 주워 엮은 미술이야기다. 이 책은 거창하지도 않고 현학적이지도 않다. 미술에 얽힌 뒷얘기나 미술가에 떠도는 얘기를 담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아, 미술에 이런 재미가 있었구나' 하고 탄성을 터뜨리게 된다.

《두 시간만에 읽는 명화의 수수께끼》(긴 시로, 박이연, 현암사)는 수채화나 유화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모네와 마네를 혼동하는 미술 초보자들을 위한 책이다. 교양가 <웃 벗은 마야>와 <웃 입은 마야>를 따로 그려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빈치는 <모나리자>의 배경을 왜 희미하게 처리했을까 등 그림 뒤에 숨어 있는 사실들을 선생과 학생의 대화문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동우 김관호가 그린 <해질녘>은 제10회 일본 문전에서 특선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누드화다. 그러나 국내신문에 보도될 때는 사진이 게재되지 못했다. 당시 《매일신보》는 "벌거벗은 그림 인고로 사진으로 게재치 못함"이라는 말을 관계 기사 뒤에 붙였다. 《이야기하는 그림》(이규일, 시공사)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 최갑수 기자